

에너지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다사다난했던 올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금년 한해 우리 에너지산업에도 여러 가지 도전과 희비의 교차가 있었다. 작년부터 불어닥친 고유가 파고는 금년에도 계속되어 국제유가는 연초에 비해 60% 이상(두바이기준) 상승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교토의정서가 금년 2월에 정식으로 발효됨으로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부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이른바 포스트 교토(post kyoto)시대로 접어들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가 금년에 확정하기로 한 동 러시아 통합가스관 노선이 계속 지연되어 금년에도 그동안 공들여왔던 이르쿠츠크 가스사업의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우울한 소식이 있었던 반면 우리의 에너지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되는 희망의 소식도 많았다. 먼저, 19년간의 숙원이었던 원전수거물처리장의 부지선정이 일부 시민단체의 이견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었다.

작년 정상외교의 후속조치로 극동 시베리아의 서캅카카광구와 카자흐스탄의 잠빌광구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전력플랜트와 석유개발부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유수의 경쟁업체를 제치고 유망한 대형유전의 탐사권을 획득하였다.

또, 정부는 에너지차관제를 도입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하는 등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켰다.

아울러, 금년을 수소경제의 원년으로 삼고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에는 경주에서 APEC에너지장관회의를 개최, APEC과 OPEC간의 정례적인 포럼결성 등 에너지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우리 에너지산업의 환경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다소 안정세에 있는 국제 유가의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유가로 올해 우리의 에너지수입액은 약 600억 달러로 예상된다. 작년의 496억 달러에 비해 100억 달러 이상 더 늘어난 것이다. 이제 에너지수입액은 반도체나 자동차를 수출한 액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같이 고유가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니 될 수 없다.

그러나 높은 유가는 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만, 그렇다고 낮은 유가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유가가 너무 낮으면 에너지 효율이 낮아져서 에너지 소비증대로 이어지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더욱 위협하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더디게 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높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불안한 에너지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오히려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낮은 유가로 인한 방만한 에너지소비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경제나 자연파괴 현상을 더 우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역설적이지만 고유가는 에너지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격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에너지대책들을 내놓았고, 재원확보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 에너지문제가 지금같이 국회나 여론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어본 적도 드물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고유가의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

유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유가변화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유가라는 마음으로 에너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강인한 토양을 배양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가오는 2006년 우리 에너지계의 화두는 유가의 변동이 아니라 그동안 세웠던 많은 고유가의 중장기 정책들을 꾸준히 시행할 수 있는 실천력을 유지하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